이틀후면 자동으로 헌법재판관 복귀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또 정치쟁점화 조짐

여 "절차문제 해소…국회표결 시도"

한 "지명철회·자진사퇴 당론 불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틀 뒤인 2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북 핵실험 사태도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고 무난히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일단 여권에서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했던 임명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돼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인 모레가 지나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절차적 하자는 모두 해소됐으므로 국회의 인준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준은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북 핵 문제 등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데다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국회 표결에는 민주당 등 미니 야당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른바 미니 야당들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 표결 반대 명분이 약해짐에 따라 결국 본회의 표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감안,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전 후보자의 소장 임명을 막아낸다는 강경한 자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양 주민들 대규모 횃불 행진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 김일성이 만주에서 조직했다는 첫 공산주의조직) 결성 8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밤 평양 주민들이 대규모 횃불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외신들 불러들이는 北

위기때마다 외신 입국 허용 국제 여론몰이

폐쇄적인 북한이 위기 때마다 주요 외신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제 여론몰이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평소 남한 언론을 비롯한 외국 취재진의 방문이나 북한 내 현장 취재를 기피하면서도 위기시에는 외신을 적극 활용하는 '계산된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찰스 라스티그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의 ABC방송 취재단이 17일 평양에 도착했다. 취재단은 방문 기간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취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BC방송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핵실험의 정당성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적대정책 비판 ▲제재 강화시 물리적 대응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6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ABC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김계관 당시 외무성 부상의 인터뷰 등을 전했다. 또 '핵실험 성공적 실시'를 발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결의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도 일본 교도통신에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7월에도 '납북 고교생' 김영남씨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구미 사망 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한 바 있다.

북한은 앞서 미국과 대립이 한껏 고조되던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 CNN방송 취재단을 받아들였으며, 고(故) 김일성 주석은 "반향이 좋았다"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들어온 선전이 거꾸로 된 것이었다고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쟁이라도 터져 하루빨리 암울한 시대 끝났으면…"

日 산케이신문 북한 인민군 병사 전화통화 내용

"전쟁이라도 터져 하루라도 빨리 지금과 같은 암울한 시대가 끝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뒤 일본의 NGO인 '북한민중구출네트워크'(RENK)가 중국내 협력자를 통해 국경도시에 근무하는 북한 인민군 병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 내용을 산케이(產經)신문이 입수, 18일 보도했다. 이 북한 병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층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다.

신문에 따르면, RENK는 중국내 협력자를 통해 지난 9일 오후 1시 이후 3차례에 걸쳐 이 국경경비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신문이 전한 대화 내용이다.

-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데 거기는 어떤가.

▲ 여기는 이미 며칠전부터 정전으로 어떤 방송도 볼 수가 없다.

- 인민군이 비상태세에 있는가. 현재 특별근무중인가.

▲ 어떤 명령도 내려오지 않았다. 여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 중국도 비난하고 있다. 인민군은 아직도 비상태세에 들어가지 않았나.

▲ 현재는 전기도 없다. 광석운반차도 대폭 줄었다. 채굴해놓은 것을 모아 싣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핵실험이 무슨 말라빠진 실험인가.

-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해 군사적 공격을 한다면.

▲ 물론 전쟁이라도 발발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암울한 시대가 끝났으면 하고 생각한다. 핵실험이 무엇을 위한 실험인가. 밑에서는 모두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않을까 생각한다. 윗대가리는 물론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 전쟁이 나지않도록 해야하지않을까.

▲ 교묘한 방법이 있다. 김정일과 윗대가리들을 체포할 수 있다면 말이다. /연합뉴스

中, 대규모 탈북 대비 단둥에 난민수용소 검토

중국이 북한 핵위기로 인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 접경지인 단둥(丹東)시에 탈북자들을 수용키 위한 '난민구(難民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가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대규모 탈북자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철조망을 설치한 것 외에도 단둥의 접경지 부근에 난민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주부터 북중 변경의 압록강변에 높이 2.5m, 길이 20㎞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쏘나타와 금 100돈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주말 국제영화제와 비엔날레가 열리는 부산에 다녀왔다. 78억원이 투입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는 스타들과 영화팬들로 북적거렸다. 광주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영화'에 푹 빠져 있는 부산이 부러웠다.

부산비엔날레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느꼈다. 관계자들은 광주와 차별화된 컨셉과 전략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98억원의 예산과 10년간 지위를 확보한 광주비엔날레를 부러워했다.

각 시도에서는 유사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먼저 출발한 곳은 선점효과를 잃지 않으려 전략을 짜고 후발주자는 선발자를 벤치마킹하며 추월을 꿈꾼다.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 당연한 일.

16~18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4회 임방울국악제 역시 '최고' 국악행사로 자리잡으려 고군분투중이다. 임방울국악제의 경쟁 상대는 전주 대사습놀이. 대사습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았으니, 연륜으로 따지면 전주가 앞서가고 광주가 쫓아가는 형국이다.

대사습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쏘나타 1대를 부상으로 지급했다. 반면 임방울 국악제는 지금까지 순금 60돈짜리 임방울 조각상을 수여해왔었다. 올해는 순금 100돈(제작비 포함 시가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금 100돈짜리 조각상이 꼭 전주의 '쏘나타'를 의식한 건 아니겠지만 주최측에서 "승용차는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전주가 신경이 쓰인 모양이기는 하다.

올해 처음 열린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성악 콩쿠르 대회를 신설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상금' 이었다. 1천만원은 웬만한 대회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거액이었고 그 덕분인지 18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들었다.

사실, 행사의 성공 여부나 권위를 객관화 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예산, 상금 규모 등이 하나의 가늠자가 되곤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번 임방울국악의 경우 큰 잡음은 없었지만 일부 경연 때 보여준 미숙한 진행이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명창부 참가자의 실력이 오히려 일반부 참가자보다 떨어진다는 심사위원장의 발언은 대회 권위를 생각하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임방울 국악제가 경연 중심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아마추어들이 참여했던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처럼 일반 시민, 특히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한 경연과 심사, 매끄러운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때 진정 임방울 국악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악축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mekim@kwangju.co.kr